

국가별 동향



뉴질랜드

‘계란 삶기’ 자신 없는 사람 이렇게 많다

뉴질랜드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계란 삶는 방법에 대해 자신이 없다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밝혀 주변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13일 여론조사기관 Colmar Brunton이 최근 뉴질랜드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란 삶는 것을 의외로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같이 밝혔다. 언론들은 이 조사에서 30세 이하 응답자 12명 중 1명꼴로 계란 삶는 데 자신이 없다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대답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30여 년 동안 요리사로 일해 온 Mike는 “사람들이 게을러 슈퍼에서 손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사다 먹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간단한 조리법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출처 : 연합뉴스).

보다 과체중인 사람들이 더욱 살을 많이 빼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영양학저널’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아침식사로 계란을 먹은 사람들은 큰 만족감과 함께 다음 식사 때에도 보다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루이지애나주립대학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 “아침식으로 계란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두 달에 걸친 혈액검사결과에서는 베이글과 계란을 아침식으로 한 사람들 모두에서 HDL,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들은 아침식으로 계란을 먹을 시 심장병 위험을 높이지 않고 살을 많이 뺄 수 있으며 하루 종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

살 빼고 싶다면 아침식사로 ‘계란 2개’ 먹어라

저칼로리 식사의 일환으로 아침식사로 계란 두 개를 먹는 것이 같은 칼로리의 베이글을 먹는 것



짐바브웨

계란 하나에 350억 Z\$!

7월 22일(현지 시간) 짐바브웨 하라레(Harare)의 한 상점에 계란 3개가 1000억 짐바브웨 달러 위에 놓여 있다. 짐바브웨에서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계란 1개가 350억 짐바브웨 달

리에 팔리고 있다. 짐바브웨의 지난 1년 인플레이션은 정부 공식발표가 2백만%, 실제로는 9백만%에 이른다. 자고 일어나면, 아니 길을 가는 중에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현지 화폐는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21일에는 1000억 Z\$ 지폐까지 찍어냈으나 이 돈으로도 겨우 식빵 한 봉지를 살 수 있을 정도로 화폐 가치가 추락했다.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8월 1일부터 100억 Z\$를 1 Z\$로 절하하는 내용이 담긴 화폐 개혁안을 7월 31일 발표하면서 화폐가치 조정에 나섰다(출처 : 로이터 통신).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신종 AI 바이러스의 발견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동물보건청은 유럽,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철새가 이동한 것은 지난해 9월이 마지막이었고, 올해는 철새의 아프리카 남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국제 무역이나 불법 가금류 반입이 원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출처 : 로이터 통신).



브라질

브라질산 닭고기 인도 시장 공략

브라질산 닭고기가 인구 10억의 인도 시장 공략을 시작했다.

브라질 농업부와 닭고기 수출업 협회(Abef)는 8월 1일 인도와 닭고기 수출협정 체결 사실을 발표하고 "인도가 앞으로 브라질산 닭고기의 주요 수출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 수출량은 연간 3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bef의 Francisco Turra 회장은 "인도에 대한 연간 닭고기 수출량이 30만t을 기록할 경우 이는 전 세계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규모"라면서 쇠고기를 먹지 않는 힌두교와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무슬림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에 대한 닭고기 수출량이 향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브라질산 닭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러시아로, 지난해 19만4천t의 수입량을 기록했다(출처 : 연합뉴스).



나이지리아

신종 AI 바이러스 발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조류에서 신종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혔다. FAO에 따르면 이번에 출현한 H5N1형 AI 바이러스는 지난 2006~2007년 나이지리아에서 창궐한 것과는 유전적으로 전혀 다르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처음 발견되는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유럽(이탈리아), 아시아(아프가니스탄), 중동(이란)에서 확인된 AI 바이러스와 보다 유사하다. FAO 동물보건청의 한 관계자는 "아프리카로 옮겨온